

<표> '10년 2분기~'11년 2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0년					2011년			
	2분기 (전기대비)	상반기 (전년동기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2010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년동기)	상반기 (전년동기)
게임	1,365.3 (6.4%)	2,648.8 (15.0%)	1,397.1 (2.3%)	1,565.6 (12.1%)	5,611.5 (10.4%)	1,654.9 (5.7%)	1,741.8 (5.3%)	27.6%	3,396.7 (28.2%)
지식정보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11.4 (1.8%)	22.6 (37.6%)	7.1 (-37.7%)	15.7 (121.1%)	45.4 (28.8%)	7.7 (-51.0%)	15.6 (102.6%)	36.8%	23.3 (3.1%)
방송	178.0 (0.2%)	355.7 (356.7%)	169.3 (-4.9%)	244.9 (44.7%)	769.9 (139.4%)	253.0 (3.3%)	443.8 (75.4%)	149.3%	696.8 (95.9%)
광고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20.7 (-58.0%)	69.9 (46.7%)	22.4 (8.4%)	23.5 (4.9%)	115.8 (-7.0%)	13.5 (-42.6%)	47.4 (251.1%)	129.4%	60.9 (-12.9%)
음악	151.4 (-1.7%)	305.3 (187.1%)	114.9 (-24.1%)	32.5 (-71.7%)	451.7 (84.8%)	56.8 (74.8%)	108.0 (90.1%)	-28.7%	164.8 (-46.0%)
애니/캐릭터	180.1 (47.7%)	302.0 (15.2%)	213.3 (18.5%)	188.4 (-11.7%)	703.7 (35.7%)	180.3 (-4.3%)	204.3 (13.3%)	13.5%	384.6 (27.4%)
합계	1,906.8 (6.0%)	3,704.4 (31.7%)	1,924.1 (0.9%)	2,070.6 (7.6%)	7,698.0 (20.4%)	2,166.2 (4.6%)	2,560.9 (18.2%)	34.3%	4,727.1 (27.6%)

- 1) 게임 중 'CJ 인터넷'은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'10년 4분기까지는 'CJ 인터넷' 및 '11년 1분기 이후는 'CJ E&M' 게임부문 영업이익을 적용. 'NHN'은 실적보고서상 '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
- 2)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
- 3) 출판 중 '대교', '능률교육', '예림당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4) 방송 중 'CJ오쇼핑', 'CJ E&M', 'SBS콘텐츠허브', 'iMBC', '초록뱀', '퀵엔터테인먼트', '삼화네트웍스', '나우콤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5) 영화 중 '미디어플러스', '키이스트', 'CJ E&M'에서 수출 발생
- 6) 음악 중 'CJ E&M', '에스엠', '소리바다', '네오위즈인터넷'에서 수출 발생. 'JYP엔터테인먼트'는 '11년 8월 30일 현재 실적보고 미발표로 분석에서 제외
- 7) 애니/캐릭터 중 '코코엔터프라이즈'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. '바른손'은 실적보고서상에서 '11년 2분기에 수출액을 발표했으나, 과거데이터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. '스튜디오앤유'는 '11년 8월 30일 현재 실적보고서 미발표로 분석에서 제외

□ 2011년 2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¹⁾

●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중심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2천 560억 원, 4천 7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.3%, 27.6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18.2% 상승

- '10년 1분기 전분기대비 -4.4% 하락 이후 '10년 3분기에 상승세로 반전 및

1)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 87개 선별(게임(20), 지식정보(7), 출판(9), 방송(22), 광고(4), 영화(9), 음악(10), 애니메이션/캐릭터(6)), 단 게임, 방송, 영화, 음악 등 4개 분야에 CJ E&M 중복적용.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등록된 기업보고서

유지하면서 '11년 2분기에 이르러 큰 폭의 상승을 보임

- 게임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1천 741억원, 3천 3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.6%, 28.2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5.3% 상승하여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증가를 주도

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68.0%, 71.9%로 '11년 1분기(81.0%)에 비해 다소 높은 하락을 보였으며, 전년동기대비 비중도 약간 하락

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 중 네오위즈게임즈(95.6%, 113.9%),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(235.7%, 211.1%) 등 자금력, 기술개발력 등 대내외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임. 대형업체 중 액토즈소프트는 '10년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'11년 2분기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-10.3% 감소

- ※ 엔씨소프트는 '11년 1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7.1% 성장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'11년 2분기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-9.7% 감소

- 중소형 업체 중에서 게임빌, 웹젠, 이스트소프트, 컴투스, 드래곤플라이, 바른손게임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'11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서도 전년동기대비 수출부진상태를 보이고 있음

- ※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 및 게임빌은 '10년 이후 국내외 스마트폰 등의 폭발적인 보급확대로 스마트폰용 게임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으로 큰 폭의 수출증대를 보임. 컴투스 및 게임빌의 '11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3.2%(150.5%)²⁾, 235.7%(152.6%) 성장하여 '10년도에 이어 '11년 1분기 이후에도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
- ※ '11년 2분기 게임 상장사들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.0%로 전년동기대비 -3.6%p 하락

- 게임은 '10년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

- ※ '10년 2분기에서 '11년 1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6.4%, 2.3%, 12.1%, 5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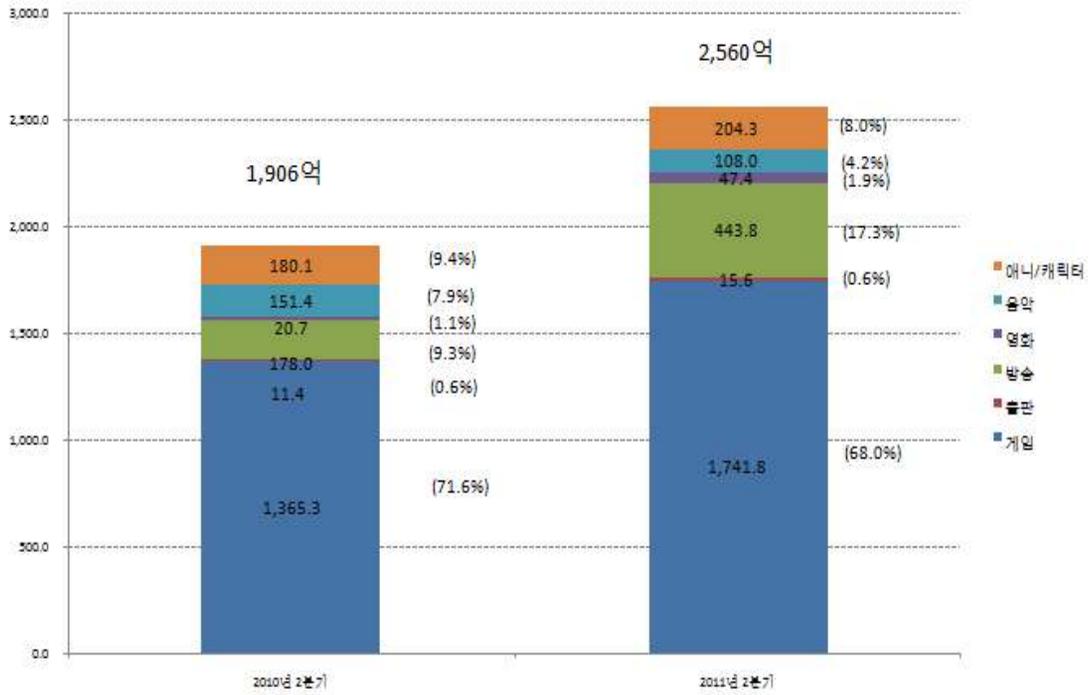
- 방송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443억원, 6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.3%, 95.9% 성장하였으며 전분기대비 75.4% 상승

2) '1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
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 비중은 17.3%, 14.7%
- 방송은 '10년 4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'1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상승을 보임
- 애니/캐릭터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204억원, 38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.5%, 27.4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13.3% 상승
 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 비중은 8.0%, 8.1%
 - 애니/캐릭터는 '10년 1분기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'11년 1분기는 상승세로 반전
- 출판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15억 6천만원, 23억 3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.8%, 3.1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102.6% 상승
 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 비중은 0.6%, 0.5%
 - 출판은 '10년 2분기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'11년 2분기에는 다소 높은 상승을 보임
- 영화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47억 4천만원, 60억 9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.4% 성장, -12.9% 감소했으나, 전분기대비 251.1% 상승
 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 비중은 1.9%, 1.3%
 - 영화는 '10년 4분기까지 상승하다가 '11년 1분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2분기에 상승세로 반전
- 음악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은 약 108억원, 16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-28.7%, -46.0% 감소했으나 전분기대비 90.1% 상승
 - '11년 2분기 및 상반기 수출액 비중은 4.2%, 3.5%
 - 음악은 '10년 2분기 이후 수출하락세를 보이다가 '11년 2분기에는 다소 높은 상승을 보임

<그림 1> '10년 2분기 vs '11년 2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

<그림 2> '10년 상반기 vs '11년 상반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